

‘왜’의 담화적 기능* **

구종남
(전북대학교)

Koo, Jong-Nam. 2004. On the Discourse Marker ‘Wae’(Why), *The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1), 61-83.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confirm three different usage of ‘wae’(why) - wh-adverb, indefinite adverb, discourse marker - and to explore the functions of ‘wae’ as a discourse marker. It has been insisted that ‘wae’ is not used as a indefinite adverb, but I argued that ‘wae’ can be used as a indefinite adverb in several dialects. In this thesis I demonstrated that discourse marker ‘wae’ has developed from wh-adverb ‘wae’ by grammaticalization. And I explored several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 ‘wae’. Among them the main function is evocation.

주제어(Key words): indefinite, discourse Marker, grammaticalization, evocation

1. 서론

본고에서는 의문사 ‘왜’의 부정사적 용법, 담화표지적 용법, 그리고 ‘왜’ 구문의 통사적 기능을 보이고, ‘왜’가 어떻게 담화표지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그것의 구체적인 담화기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에서는 대부분의 의문사가 부정사로서의 용법을 가지며 이들 중 ‘어디’, ‘뭘’ 등은 담화표지로도 쓰이고 있다.¹⁾ 의문사 ‘왜’의 경우 그간의 몇몇 논의에서 부정사적 용법이 부정되었으나, 방언에서는 ‘왜’가 자연스럽게 부정사로 쓰이고 있다.²⁾ 또한 ‘왜’는 의문사나 부정사가 아닌 또 다른 기능을 갖는다.

* 이 논문은 2000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이 논문은 2003년 9월 27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국어문학회 전국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 발표되었음.

1) 영어의 경우 의문사에서 발달한 담화표지에 대한 논의는 Brinton(1996) 참고.

2) 중앙어에는 ‘왜’의 부정사적 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필자는 전라 방언뿐만 아니라, 충청, 경상 방언 등에도 부정사로서의 용법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그 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왜’는 담화표지로 쓰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왜’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이한규(1997)가 유일하다. 그의 논의에서는 이 담화표지가 의문사 ‘왜’로부터 Grice(1975)의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에 의한 추론으로 설명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왜’는 문법화되어 이미 담화 표지로 굳어진 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의문사와는 다른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협력원리에 의해 문맥에서 직접 추론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논의에서는 ‘왜’의 다양한 담화 기능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왜’의 의문사적 용법, 부정사적 용법, 담화표지적 용법과 이 경우의 통사 현상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담화표지 ‘왜’의 형성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왜’가 문제삼는 사태가 문맥적으로 추론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왜’의 구체적인 담화적 기능을 논의한다.

2. 담화표지 ‘왜’의 형성 및 담화적 기능

2.1. ‘왜’의 세 가지 용법과 담화표지 ‘왜’의 형성

2.1.1. ‘왜’의 세 가지 용법

2.1.1.1. ‘왜’는 기본적으로 의문문에 쓰여 ‘무슨 까닭으로/어째서’라는 뜻을 가진, 이유나 원인을 물을 때 사용하는 부사다.

(1) 진호가 왜 밥을 안 먹냐?

(1)에서 ‘왜’는 전형적인 의문부사로 쓰였다. 이 때 ‘왜’는 이유를 나타내며 (1)은 의문문이다. 그런데 ‘왜’가 단순히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의문사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용법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왜 그 노래가 좋더라.

(2)는 방언 자료인데 여기에 쓰인 ‘왜’는 이 문장이 평서문이기 때문에 의문 부사로 해석될 수 없다. 지금까지 ‘왜’의 부정사적 용법이 부정되어 왔으나(서정목 1986, 임홍빈 1998, 이선웅 2000)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전라방언뿐만 아니라, 충청, 경상 등 중부방언과 제주방언을 제외한 방언에서

는 ‘왜’가 부정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다.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어떻게’ 등은 지시 면에서 특정 대상을 확정적으로 가리키지 않는 부정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다³⁾ 이들 의문사가 부정사로 쓰일 때에는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또 다른 부정 표현 ‘의문사+(이-)+-ㄴ가’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⁴⁾ 이 때 후자도 부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이선웅 2000).⁵⁾ 따라서 우리는 의문사가 ‘의문사+(이-)+-ㄴ가’로 별다른 의미 차이없이 교체 가능하다면 이 의문사는 부정사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방언의 ‘왜’ 구문을 보기로 한다.⁶⁾

- (3) a. 민호가 왜 그 애를 싫어하냐?
 b. 민호가 왜 그 애를 싫어하더라.
 c. 민호가 웬지 그 애를 싫어하더라.
- (4) a. 진호가 요즈음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냐?
 b. 진호가 요즈음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해.
 c. 진호가 요즈음 웬지 학교를 안 가려고 해.

(3-4)의 (b)에서 보듯이 적어도 방언에서는 평서문에서 ‘왜’가 쓰이고 또 (c)가 보여 주듯이 이 ‘왜’가 ‘웬지’로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왜’가 부정사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⁷⁾⁸⁾ 이런 ‘왜’의 용법은 전라방언뿐 아니라 충청, 경상 방언 등 다른 방언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

3) 임흥빈(1998)에서는 ‘어떻게’도 부정사적 용법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전라방언에서는 ‘어떻게’가 부정사적으로 쓰일 수 있다.

4) 서경수(1985)에서는 의문사 뒤에 와서 부정 표현이 되게 하는 ‘-ㄴ가’를 부정사의 형태적 표지로 보고 있다.

5) 사실 부정사와 ‘의문사+(이-)+-ㄴ가’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 이들간의 의미 기능상 차이는 이선웅(2000) 참고.

6) 본고의 방언 자료는 전라방언 자료이다.

7) 여기서 ‘의문사+(이)-+--ㄴ가’ 형식과 ‘의문사+(이)-+--ㄴ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능이 같아서 ‘-ㄴ지’도 부정사의 형태적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8) 임흥빈(1998)에서는 기본적으로 ‘왜’가 부정사적 용법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 그 이유를 ‘단언의 가치 부정에 대한 제약’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전라방언에서는 ‘왜’가 부정사적 용법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런 설명은 의미가 없다. 사실 부정사는 화자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명제를 단언하면서 진리치를 의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옳다고 믿는 명제의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단언의 부정가치에 대한 제약’은 ‘왜’가 부정사의 용법을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 이의 부정사적 용법은 꽤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⁹⁾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왜’는 의문사로 해석되지 않고 ‘왈지’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사로도 해석된다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용법을 가지고 있다.

- (5) a. 설날에 눈이 오면 왜 풍년이 든다고 하잖아.
- b. 그 때 왜 진호네 형이 고등학생이었는데.
- c. 그 애 왜 구구단 못 외운다고 매일 혼났었지.

평서문에 쓰인 위 (5a-c)의 ‘왜’는 부정사로 해석되기 어렵다. 혹시 (a)의 ‘왜’가 ‘왈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 의문사 ‘왜’가 부정사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5b,c)의 경우를 보면 확실해진다. 부정사 ‘왜’나 ‘왈지’가 비확정적인 이유를 나타낸다고 볼 때, 위 경우의 ‘왜’가 이런 기능을 나타낸다면 (5b,c)는 성립이 불가능해야 될 것이다. (5b)에서 ‘왜’가 부정사, 즉 ‘왈지’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면 이 ‘왜’는 화용상 계사구문과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5c)에서는 후행절의 이유가 선행절에 제시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문맥상 ‘왜’가 비확정적인 이유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도 (5b,c)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이 때의 ‘왜’가 부정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용법의 ‘왜’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문장의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도 갖지 않으며, 분포 면에서도 상당히 자유롭고 그 출현이 수의적이며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담화표지적 특징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담화표지자로 보기로 한다. 이제 이 세 가지 ‘왜’의 통사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⁰⁾

2.1.2. 세 가지 ‘왜’의 통사 현상

2.1.2.1. 먼저 의문사 ‘왜’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문사 ‘왜’는 화자가 참으로 인식한 어떤 사태에 대해 그 이유나 원인을 묻는 기능으로 하는 것으로 문장 중간에 쓰일 수도 있지만 단독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9) 다만 다른 방언에 ‘왜’의 부정사적 용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쓰임이나 빈도는 이들 방언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10) 이는 ‘언제, 어디, ’뉘’와 같은 의문사가 부정사적 용법을 가지며 나아가 이들이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6) 미자가 왜 밥을 안 먹었나 ?

(7) A: 나 내일 소풍 못 가.

B: 왜?

(6)은 ‘왜’가 문장 중간에 쓰인 경우로 화자는 그가 이미 참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자가 밥을 안 먹었다’는 사태에 대해 그 이유를 묻고 있다. 한편 (7)에서 ‘왜’는 단독적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이미 화자가 어떤 사태의 참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인 (6)과는 달리 ‘A’의 발화로 인하여 ‘B’가 어떤 사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다. 위 (7)에서처럼 ‘왜’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왜’에 의문문과 같은 억양이 놓이며 이 억양이 놓인 ‘왜’는 ‘왜, (네가) 내일 소풍을 못 가?’와 같은 것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왜’의 억양을 무시하면 ‘왜?’ 뒤에 ‘(네가) 소풍을 못 가?’와 같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가 단독적으로 쓰여도 생략된 부분이 나타내는 사태의 이유를 묻는다는 점에서는 문장 중간에 쓰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화자가 의문스러워하는 사태가 어떤 사태가 무엇인지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왜’의 용법을 보이는 경우다.

그러나 ‘왜’가 반드시 위와 같이 어떤 사태가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8) A: 진호 오늘 아파요?

B: 왜?

A’: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요.

(9) A: 방이 너무 어두워요.

B: 왜, 밝은데.

(10) A: 지난 번 그 애가 누군 줄 알아?

B:.....

A’: 왜, 순영이잖아.

(8)에서 ‘왜’는 오늘 진호가 아픈 사태에 대한 이유를 묻는 데 쓰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사태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다. 화자 B는 ‘왜’를 통해 화자 A의 질문 내용에 드러나 있는 사태가 아니라, A가 오늘 진호가 아프냐고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¹¹⁾ 즉, ‘왜’

11) 이 때의 ‘왜’도 (7B)와 같은 억양이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는 ‘왜 그걸 물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왜’에 놓이는 억양을 무시하면 ‘왜’ 뒤의 내용(그걸 물어?)이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9)에서 ‘왜’는 질문의 수행 억양이 놓이지는 않아서 상대방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방이 어둡다고 말하는 상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즉, ‘왜’는 ‘왜 그렇게(방이 어둡다고) 생각해/(말해?)’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등으로 해석되며 역시 ‘왜’ 뒤의 문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²⁾ 한편 (10)에서는 ‘왜’가, 청자가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을 모르는 이유를 묻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왜’ 뒤에는 ‘그걸 몰라?’, 혹은 ‘그걸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네’ 등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8-10)에서의 ‘왜’는 언어적으로 드러난 사태를 묻는 것이 아니지만 이 경우의 ‘왜’도 역시 의문사 ‘왜’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으로 드러난 사태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경우나 언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쓰이는 ‘왜’는 그 특징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부사로서 문두나 문장 중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다만 문말에 나타나는 것은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 의문사 ‘왜’에는 초점 강세도 부여될 수 있고 다른 의문사와도 공기가 가능하다.¹³⁾ 그리고 의문사 ‘왜’ 질문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요청하는 화행을 가진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의 ‘왜’는 문장 중간에 쓰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9,10)의 경우에는 초점 강세도 부여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10)의 경우에는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2.1.2.2. 이제 ‘왜’가 부정사로 쓰이는 경우의 몇 가지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때는 의문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부정사 ‘왜’는 의문문에 쓰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의문사와 공기할 수도 없다.

둘째, 초점 강세가 부여될 수 없다.

12) ‘왜’가 단독으로 쓰이고 억양이 의문문과 같게 되면 의문 수행능력을 가지게 되어 ‘너 왜 내일 소풍 못 가?’와 같이 방금 새롭게 인식한 사태의 이유를 묻는 의문문과 같이 될 수 있다. 반면 ‘왜’ 뒤에 휴지가 충분하지 않고 의문의 억양이 걸리지 않으면 이는 의문이 내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왜’로 묻는 이유에 대해 말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들은 다르다.

13) 다른 의문사와 공기가 가능한 경우는 ‘왜’가 문장 중간에 쓰이는 전형적인 의문사로 사용될 때다.

- (11) a. *미자가 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 b. *미자가 왜 출근을 안 했더라.

(11)에서 보듯이 '왜'에 초점 강제가 놓이면 비문이 된다. 모든 부정사가 그렇듯이 부정사는 그 성격상 정보의 초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를 나타내는 절과 공기할 수 없다.

- (12) a. *나는 왜 미자가 착해서 좋더라.
- b. *김씨가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왜 일찌감치 문을 닫더라.

(12a)에서 '왜'는 내가 미자를 좋아하는 비확정적인 이유를 나타내는데 '미자가 착해서'라는 확실한 이유가 제시됨으로써 이들간의 상충되는 기능으로 인하여 비문이 된다. (12b)도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

넷째, 부정사 '왜'는 문말에도 나타날 수 있다.

- (13) a. 나는 비 오는 날이 좋더라 왜.
- b. 그 사람들은 오징어를 안 먹어요 왜.

(13)에서 보듯이 부정사 '왜'는 의문사 왜보다 그 출현 위치가 더 자유로워 문말에도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의문사 '왜'와는 달리 부정사 '왜'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¹⁴⁾

2.1.2.3. '왜'가 담화표지로 해석될 때 어떤 통사현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담화표지 '왜'도 초점 강제가 부여될 수 없다.

- (14) a. *3월이면 왜 눈이 녹잖아.
- b. *희영이가 왜 오늘 지각했잖아.

14) 아래에서 보듯이 부정사 '왜'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나 부정표현 '왠지'는 뒤에 어떤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인식되지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이는 부정사 '왜'와 부정 표현 '왠지'의 기능이 다를음을 의미한다.

A : 미자가 이번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대.
 B : 왠지/*왜.

‘왜’가 초점 강세가 부여되면 (14a, b)는 비문이 된다. 이런 현상은 일단 이 경우 ‘왜’가 어휘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정사 ‘왜’와 같이 역시 출현 위치가 비교적 자유스럽다

- (15) a. (왜) 그 여자가 (왜) 김씨한테 돈을 (왜) 빌려줬잖아 (왜).
- b. (왜) 그 애가 (왜) 공부 잘한다고 (왜) 4학년에서 (왜) 6학년으로 (왜) 월반했잖아 (왜).

(15)에서 보듯이 담화표지 ‘왜’는 문두나 문중에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부정사 ‘왜’와 같이 문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의문문에 쓰일 수 없으며 따라서 의문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

- (16) a. *왜 누가 시험에서 이겼습니까?
- b. *철수가 왜 언제 돌아왔습니까?
- c. *왜 그 애 어디서 그걸 샀습니까?
- d. *왜 기영이가 무얼 잃어 버렸나?
- e. *왜 철수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했나?

넷째, ‘왜’는 신정보를 포함한 문장에서는 쓰일 수 없다.

- (17) A: 민호 점심 때 뭘 먹었나?
- B: *민호 왜 자장면 먹었어.

(17)에서 A의 질문에 B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답한다고 할 때 ‘자장면’은 신정보이다. 그런데 (17B)는 비문이다. 따라서 담화표지 ‘왜’는 신정보를 가진 문장에서는 쓰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¹⁵⁾

2.1.2.4. 이제 명백한 의문사로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부정사로도 쓰이지 않는 ‘왜’의 다른 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⁶⁾

15) (17B)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왜’가 ‘왜, 그걸 몰라?’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의문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다.

16) 이런 용법은 전라방언에서 활발히 나타나며 다른 방언에도 존재한다.

- (18) a. (우는 아이에게) 형이 왜 때렸어?
 b.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에게) 머리 아프면 왜 타이레놀 먹어/먹지.
- (19) A: 진호 안 오냐?
 B: 못 온대
 C: 진호 왜 저기 오네.
- (20) A: 너도 갈 거냐?
 B: 나는 왜 가면 안 돼?

(18-20)에서 ‘왜’는 그것이 쓰이는 문맥으로 볼 때 부정사도 아니며, 직접적으로 의문사의 기능을 나타내지도 못한다. (18a)는 ‘왜’의 존재와 상관없이 형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여부를 묻는 관정의문으로, (18b)는 권유로, (19C)는 진술로, (20B)는 역시 관정의문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 본고에서는 이 경우 ‘왜’가 직접적으로 의문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의문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들 예문은 기본적으로 다음 예문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18') a. (우는 아이에게) 왜, 형이 때렸어?
 b. (배아프다고 하는 아이에게) 왜, 배 아프면 이 약 먹어/먹지.
- (19') A: 진호 안 오냐?
 B: 못 온대
 C: 왜, 진호 저기 오네.
- (20') A: 너도 갈거냐?
 B: 왜, 나는 가면 안 돼?

이들 예문은 앞의 예문 (8-10)과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왜’는 언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사태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8-10)과 같은 유형과 같이 ‘왜’ 뒤에 질문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도 의문사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런데 ‘왜’가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 (18-20)은 의문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의문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위의 질문 형태가 기본적으로 (18'-20')과 관련된다고 볼 때, 우리는 ‘왜’가 의문사라고 할

17) 이를테면 (18가)에서 ‘왜’는 ‘왜, 울어?’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어떤 사태에 대한 이유를 직접 묻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왜’ 뒤의 생각된 부분이 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사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런 성격을 가진 ‘왜’는 명시적인 의문사 ‘왜’와는 달리 의문문이 아닐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 (21) a. 너도 왜 한 벌 사라.
b. 우리도 왜 놀러 한번 갑시다.

(21a)는 명령문, (21b)는 청유문이다. 전자는 화자가 청자가 옷을 안 산 상황에서 그 사지 않는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청자에게 한 벌 사라는 명령(권유)을 하는 문장이다. 즉, (21a)는 옷을 안 산 이유를 궁금해 하지만 그 이유를 알려고 의문을 표출하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21b)도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¹⁸⁾ (18-21)의 ‘왜’는 어떤 사태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표출되지 않고 그 의문이 내면화되어 명령이나 청유의 화행과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왜’가 이들 서법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은 의문사 ‘왜’가 직접적으로 의문의 수행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분포 면에서 의문사 ‘왜’와 다르게 의문사로서 의문 수행 능력을 상실한 ‘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왜’의 경우를 의문사 ‘왜’의 확대된 용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왜’가 직접 질문의 수행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의문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¹⁹⁾ 이 ‘왜’는 비록 앞서 살펴본 담화표지와도 그 의미 기능에서 성격이 좀 다르지만 직접 의문사로 해석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담화표지가 같은 일반적인 특징, 즉 어휘적 의미로 쓰이지 않고 초점 강세도 부여될 수 없으며 분포도 자유롭게 담화상황에서만 쓰인다는 점 등을 보인다는 점에서 편의상 일단 담화표지의 범주에 넣어 기술하기로 한다.

2.2. 담화표지의 ‘왜’의 형성

담화표지 ‘왜’는 의문사 ‘왜’와 형태가 같고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18) 즉, (21가,나)는 기원적으로 다음 (가,나)와 같은 것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 (i). 왜 너는 안 사냐? 너도 한 벌 사라.
(ii). 왜 우리는 놀러 안 가요? 우리도 놀러 한 번 갑시다.
19) 본고에서는 이런 ‘왜’의 용법에서 담화표지 ‘왜’가 발전했다고 본다.

서 의문사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표지 ‘왜’가 Grice의 추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이한규 1997) 다른 무엇보다도 담화표지 ‘왜’는 의문사와 그 출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추론으로는 설명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른 담화표지처럼 ‘왜’도 문법화에 의해 굳어진 담화표지로서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²⁰⁾

먼저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22) A: 너 그 책 샀냐?

B: 너도 사려고?

B’: 왜? 너도 사려고?

B’’: 너도 왜 사려고?

(23) A: 그 애들 신혼 여행 팜으로 갔다 왔지?

B: 글썸,

A’: 그 애들 팜으로 갔다 왔잖아.

A’’: 왜? 그 애들 팜으로 갔다 왔잖아.

A’’’: 그 애들 왜 팜으로 갔다 왔잖아.

(22)에서 보듯이 A의 질문에 대해 B처럼 바로 되묻는 질문을 할 수도 있으나, B’처럼 ‘왜’로 질문의 이유를 묻고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때는 ‘왜’ 뒤에 생략된 부분이 가정된다. 그런데 이때 발화 수행 상 A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B처럼 대답하려고 ‘너도’를 발화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묻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어서 ‘왜’를 발화하게 되면 B’’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왜’가 문장 중간에 놓이게 되어 의문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왜’ 뒤의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 경우 화자는 ‘왜’를 의문사로 썼을지라도 ‘왜’가 문장 중간에 개입됨으로써 문맥상 의문사로 해석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청자는 당연히 ‘왜’보다는 ‘너도 사려고?’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왜’는 청자 쪽에서 보면 정상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청자는 ‘왜’에 대해 적절한 해석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즉, 이 경우 청자는 ‘왜’를 화자의 ‘막연한 이유관련 의심표출’로 이해할 것이다.

(23)의 경우에도 A는 상대방이 질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B가 질문 내용을 확실히 모를 때 B에게 상대방에게 A’과 같이 A가 믿고

20) 의문사에서 부정사가 기원되었는지 부정사에서 의문사가 기원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임흥빈(1998) 참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다. 또한 A"처럼 '왜'로 상대방이 모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나타낸 다음 믿고 있는 내용을 말해 줄 수도 있다. 역시 이 때는 '왜' 뒤에 생략된 부분이 가정된다. 한편 A"'의 경우는 A'처럼 단순히 상대방이 모르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알려 주려고 '그 애들'을 발화했다가 상대방이 모르는 질문 내용을 모르는 이유가 궁금하여 '왜'를 발화 중간에 발화한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왜'가 (22)의 경우와 같이 서술문에 놓이게 됨으로써 의문사로 해석되지 못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역시 청자는 이 '왜'를 어떤 식으로든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즉, 청자는 '왜'가 명시적인 의문사로는 해석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에 관한 막연한 의심 표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문법화의 관점에서 (22-23)에서 '왜'가 문장 중간에 놓이게 되어 의문사로 해석되지 못하게 될 때 청자가 이를 어떤 식으로든 해석하려고 하여 이를 막연한 이유관련 의심의 표출로 해석하게 되는 것은 문맥적 재해석(context-induced interpretation)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 때 기원적으로는 의문사인 '왜'가 의문사로 해석되지 못하고 막연한 이유관련 의심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의 표백화(bleaching)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왜'가 정상적인 부사로서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초점 강세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문 성분과 문법적인 관련도 맺지 못하게 되고, 선행 성분에 휴지 없이 결합될 수 있어 접사처럼 기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이를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앞 예문 (22-23)과 같이 그것이 문제삼는 사태가 설정되기 어려운 문맥에서 막연한 이유관련 의심 표출 기능을 나타내는 '왜'의 용법이 확대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런 '왜'의 새로운 의미가 관습화되어 담화표지로 쓰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문사로서의 근원적으로 의문문의 화행을 드러내는 용법에 바탕을 둔 '왜'가 문법화되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 '왜'의 담화적 기능

이제 '왜'가 담화상에서 수행하는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18-20)

21) 요컨대 '왜'가 담화표지로 쓰이게 되는 것은 '왜'가 의문사로 해석되지 못하는 문맥에 놓임으로써 문맥적 재해석에 의해 나타나는 막연한 이유관련 의심으로 쓰이는 '왜'의 사용이 관습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맥적 재해석에 대해서는 Heine et al.(1991a) 참고.

의 경우처럼 ‘왜’가 언어적으로 드러난 사태의 이유를 묻지 않는 경우에는 담화에서 그 이유를 묻는 기능은 약화되고 화자의 막연한 이유관련 의심표출과 같은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왜’의 구체적인 담화적 기능은 문맥적 기능에서 기인될 수 있다. ‘왜’가 없어도 문맥에 따라 추론될 수 있는 의미기능이 이유 관련 의문을 나타내는 ‘왜’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고 할 수 있다. 만일 ‘왜’가 없으면 그 구문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 ‘왜’가 쓰일 경우 화자의 막연한 이유관련 의문의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왜’는 구체적인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왜’의 담화적 기능을 ‘왜’로 묻는 이유가 담화상에서 명시적으로 추론 가능한 경우와((18’-20’)처럼 ‘왜’가 문두로 올 수 있는 경우), ‘왜’로 묻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추론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2.3.1. 이유가 명시적으로 추론 가능한 경우

첫째 ‘왜’는 상대의 발화 의도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4) A: 미자 도서관 갔어요?
 B: 너도 도서관 가냐?
 B’: 너도 왜 도서관 가냐?

(24)에서 A의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24B)처럼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24B)처럼 ‘왜’가 없으면 B 발화 자체로 단순한 관정의문이 되지만 (24B’)처럼 ‘왜’가 개입되면 단순한 관정의문으로 해석되지 않게 된다. ‘왜’를 가진 (24B’)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묻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24B’)에서 화자 B’이 A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묻는 까닭은 ‘왜’ 구문의 화자는(B’) 청자(A)가 질문하는 이유가 청자(A)가 장차 도서관에 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가 화자 B’이 이런 추론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한다.²²⁾ 이 경우 ‘왜’가 개입됨으로써 문맥적으로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확인하려는 의미 기능이 드러난다. 요컨대 ‘왜’는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확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

22) ‘왜’를 갖지 않은 (24A)는 단순히 상대가 도서관 가는지의 여부만을 묻는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다.

둘째, 발화 내용에 대한 반박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25) A: 미자 안 온대 ?

B: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와요.

C: 미자 왜 저기 오네.

(25)의 경우에도 C의 발화에서 ‘왜’가 없으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왜’가 개입됨으로써 B의 진술 내용과 다른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진술 내용을 화자가 반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셋째,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26) A: 국이 싱겁네요.

B: 내 입맛에는 괜찮은데.

B’: 내 입맛에는 왜 괜찮은데.

위에서 ‘왜’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듣고 국이 싱겁다고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인식 방식의 이유에 대해 의문을 드러냄으로써 이의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6B)에서 ‘왜’가 없으면 단순히 자기 의견만을 드러낼 수 있다.²³⁾

넷째, 기대 부정의 태도를 나타낸다.

(27) A: 이게 무슨 꽃인 줄 알지?

B:

A’: 지난번에 내가 제비꽃이라고 알려 줬잖아.

A’’: 지난번에 내가 왜 제비꽃이라고 알려 줬잖아.

(27)에서 발화 A’와 A’’은, A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B가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B가 모르는/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에 의해 쓰

23) (26B’)도 반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왜’의 이의제기 의미기능과 반박의 의미기능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대화에서 B의 발화에 나타난 ‘왜’는 분명히 이의제기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A: 이번에 동옥이가 정말 애썼어.

B: 미자도 왜 고생 많이 했어.

일 수 있다. 여기서 ‘왜’가 쓰인 A’의 발화는 단순히 B에게 어떤 사실을 환기시켜 주는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나 A”는 ‘왜’가 모르는/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막연한 의문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결국 화자의 기대 부정의 심리태도를 나타낸다.

다섯째, 이해 불가의 심리 태도를 나타낸다.

(28) 미자: (엄마 앞에서 배가 아픈 표정을 짓는다.)

엄마: 배 아프면 이 약 좀 먹어.

엄마’: 배 아프면 왜 이 약 좀 먹어.

여기서도 엄마의 첫 번째 발화는 단순히 명령(권유)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왜’를 가진 엄마의 발화는 상대가 어떤 행위, 즉 약을 안 먹는 행위의 이유에 대해 막연한 의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이해 불가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섯째, 불쾌감의 표출기능을 수행한다.

(29) A: 너도 같거니?

B: 나는 가면 안 돼?

B’:나는 왜 가면 안 돼?

‘왜’ 구문 (29B’)은 상대의 발화 의도의 이유에 대한 의문의 태도를 표출함으로써 불쾌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역시 (29B)는 단순히 가부만을 묻는 질문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왜’가 불쾌감 표출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런 ‘왜’의 기능은 모두 맥락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가 없으면 이런 의미기능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왜’가 그 의문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구문에서는 그것이 통사적, 의미적으로 의문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문맥에 나타남으로써 이유나 원인의 기능은 약화되어 위에서 살펴본 담화적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왜’가 나타내는 의문의 이유가 문맥상 드러나는 경우였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상대의 발화에 대해서 쓰인 것이 아니고 화자가 의심스러워하는 사태에 대한 것도 아닌 경우 이것이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3.2. 이유가 명시적으로 추론되기 어려운 경우

2.3.2.1. 먼저 문맥적으로 이유가 직접 추론되기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일한 문장 내용이지만 문말 어미만을 달리해서 쓰인 아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30) a. 우리나라에도 왜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b. 우리나라에도 왜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어요.
 c. 우리나라에도 왜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d. 우리나라에도 왜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는데.

(30a-d)는 의문문이 아니므로 ‘왜’가 의문사로 쓰이지 않고 담화표지로 쓰였다.²⁴⁾ 이 경우 ‘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 이들 ‘왜’가 근본적으로는 의문사 ‘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 문장들이 쓰인 맥락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30)의 문장들이 (31)과 같은 발화 뒤에 쓰였다고 하자. (30)을 (32)로 다시 제시한다.

- (31)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별을 연구했다.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한 거야.
 (32) a. 우리나라에도 왜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b. 우리나라에도 왜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어요.
 c. 우리나라에도 왜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d. 우리나라에도 왜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는데.

발화 (31) 뒤에 쓰인 (32=30)에서 ‘왜’는 문맥상 그것이 이유로 문제삼을 만한 사태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태에 대한 이유와 관련되는지, 무엇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지 알기 어렵다. ‘왜’는 다만 이유 관련 의심만 표출할 뿐이다. ‘왜’가 드러내는 의심 내용은 맥락이 주어질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30=32)에서 ‘왜’가 없다고 보고 이 ‘왜’가 없는 이들 각각의 발화 뒤에 ‘왜’가 통합된 다음과 같은 후행 발화가 이어진다고 하자. 이들 발화문을 하나의 대화로 통합해 보기로 한다.

24) 물론 ‘왜’가 부정사로 쓰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 가능성은 무시하기로 한다.

- (33) A: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별을 연구했다.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한 거야.
 B1: 우리나라에도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점성술이 발달하지 못했지?
 B2: 우리나라에도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어요. 왜 서양에서만 별을 연구했다고 생각하세요?
 B3: 우리나라에도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세요/모르세요?
 B4: 우리나라도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는데. 왜 그게 생각이 안나지? 응..... 첨성대 같은 것 말이야.

위에서 우리는 관련 사태와 연결되지 않는 ‘왜’ 구문 (30a-d)의 ‘왜’가 문제삼는 사태가 (33B1-4)의 각 후행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33B1-4)의 두 번째 문장 ‘왜’ 이하의 내용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32)에서 ‘왜’는 본질적으로 화자의 머리 속에는 있으나 언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33B1-4)의 후행문으로 나타난 ‘왜’ 문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²⁵⁾

이는 곧 앞 (30)과 같이 ‘왜’가 문제삼는 사태가 문맥적으로는 직접 추론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왜’는 분명 화자의 머리 속에 있는 어떤 다양한 사태의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왜’가 문제삼는 어떤 사태가 추론이 가능하도록 언어적으로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앞 (30a-d)는 뒤 (33B1-4)와는 달리 무엇에 대한 의심인지를 알 수 없고 이들 ‘왜’ 구문은 다만 막연한 의문적 이유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32)에서 ‘왜’ 구문 화자의 입장에서 분명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뒤의 (33B1-4)의 후행문을 염두에 두고 화자가 ‘왜’를 발화했다고 보면 앞 예문 (32)에서 ‘왜’가 문제삼는 사태는 (32a)에서는 서양에서 별을 연구함으로써 점성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상대의 발화에 대하여 그런 논리 관계(별 연구와 점성술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성립되지 않는 사태에 대한 것이고, (32b)에서는 서양에서만 별을 연구했다고 하는 상대의 발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태에 관한 것이다. 한편, (32c)는 우리나라에서도 별을 연구했다는 것을 청자가 알고 있다고 화자가 믿고 있는데 상대의 발화 내용

25) 물론 전자에서는 ‘왜’가 문제삼는 사태가 화자의 머리 속에만 존재할 뿐인데 반해, 후자에서는 ‘왜’가 묻는 사태가 언어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이들의 담화상의 가치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으로 볼 때 그걸 모르고 있는 사태에 대한 것이다. 한편 (32d)에서 ‘왜’가 문제삼는 사태는 상대의 발화를 듣고 한국에서도 별을 연구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 화자가 그 별을 연구하는 곳이 생각나야 된다고 믿는데 생각 안 나는 사태에 대한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왜’는 이들 사태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²⁶⁾

이렇게 보면 이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32a)는 이해 불가의 태도로, (32b)는 의의제기로, (32c)는 기대부정으로, (32d)는 이해불가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²⁷⁾ 그러나 (32)에서는 (33B1-4)의 후행절을 염두에 두고 발화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왜’를 의문사로 가정한 위와 같은 추론의 결과는 임의적이지만²⁸⁾ ‘왜’는 단순히 막연한 이유관련 의문만을 나타낼 뿐이고 ‘왜’가 문제삼는 이유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문맥상 간접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왜’가 문제삼는 사태가 명시적으로 추론되기 어려운 경우 ‘왜’의 담화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담화표지 ‘왜’는 환기적인 기능을 갖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34) 미자가 국민학교 때 우리 반이었던 진호하고 결혼했어. 키 크고 왜 우리 반에서 제일 달리기 잘 했던 애 있잖아.

(34)에서는 ‘왜’가 맥락상 그 이유를 의문스러워하는 사태가 드러나 있지도 않고 명시적으로 추론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왜’는 화자의 막연한 이유관련 의문만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경우 ‘왜’는 어떤 담화기능을 수행할까? (34)에서 문맥상 화자는 ‘잖아’가 보여 주듯이 청자가 발화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점에서 ‘왜’가 청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⁹⁾ 다음 예문은 이런 ‘왜’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26) 여기서 이유가 명시적으로 추론 가능한 경우든, 추론 가능하지 않은 경우든 기본적으로는 추론에 의해 ‘왜’의 의미 기능이 설명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본고에서 그러하듯이 추론에 의해 ‘왜’가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과정을 추론에 의해 설명하는 것(문법화의 한 원리임)과 ‘왜’의 모든 의미기능이 담화상의 협력원리에 의한 추론으로 설명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27) 다만 (32가)의 이해불가는 별을 연구했으면 점성술이 발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즉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이해 불가이고 (32라)는 단순히 기억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것에 대한 이해불가를 나타낸다.

28) 동일한 ‘왜’ 구문에 대해 이런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임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29) 이 경우 ‘왜’는 완전히 문법화되어 전형적인 담화표지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좀더 분명히 보여 준다.

- (35) a. 김씨네는 식구가 왜 다섯이잖아. 그래서 다섯 개를 보냈어.
 b. 매의 부리는 왜 끝이 구부러져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매리 코라고 불러.
 c.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고드름이 아래쪽으로 점점 커지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고드름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커 가는 거야.
 d. 그 다음 시간은 왜 체육시간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거든.

위의 발화가 쓰이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경우 ‘왜’ 구문도 의문스러워하는 사태를 직접 추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왜’를 의문사 ‘왜’와 직접 관련시키기 어렵다. 여기서도 ‘왜’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양태 요소 ‘-지’, ‘-잖’과 함께 쓰이는 사실이 보여 주듯이, 이 ‘왜’ 구문의 발화 내용은 청자가 알고 있으리라고 화자가 가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사실과 이 경우 ‘왜’가 이유관련 사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왜’가 맥락적으로 추론되는 의미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 때의 ‘왜’는 청자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환기적 기능은 단지 ‘-지’, ‘-잖’에 의한 것이고 ‘왜’ 자체의 의미 기능이 아니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기억을 환기하는 경우에 ‘왜’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왜’의 환기적 기능이 ‘-지’나 ‘-잖’에서 기인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 (36) A: 너 수철이라고 생각나냐 ?
 B: 응, 우리 앞집에 살던 애 말이잖아. 옛날에는 개네 집이 가난해서 그 애 엄마가 왜 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A': 아니, 그 애 엄마가 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했다는 말이야 ?

‘왜’ 구문 (36B)에는 ‘-지’, ‘-잖’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왜’는 환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기적 기능이 ‘지’, ‘-잖’에서 기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³⁰⁾ 한편 A'의 질문 내용으로 볼 때 A는 수철이 엄마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 수 없다.³¹⁾ 따라서

이 경우 ‘왜’는 화자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왜’ 자체가 환기적 기능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³³⁾

또한 무엇보다도 실제 담화에서는 ‘왜’가 ‘잖’이나 ‘-지’와 같이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환기적 기능이 ‘왜’ 자체에 있음을 말해 준다.

- (37) a. 우리도 왜 돈 뜯겼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군요.
 b. 애들이 왜 울어대면,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c. 내가 나무에 기대어 않아 있는데 미국산 불곰, 왜 엄청나게 덩치 크고 무서운 놈, 그 놈이 나를 노려보는 거야.

(37)에 쓰인 ‘왜’는 ‘잖’, ‘-지’와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모두 환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³⁴⁾ 요컨대 ‘왜’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환기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왜’는 시간 별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

- (38) a.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기영이네 집에 물이 찼을 때, 누구더라..., 응, 군수가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고 왔었잖아. 그 때 군수가 제방을 높여 준다고 했거든.
 b. 지난번에 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왜 기영이네 집에 왜 물이 찼을 때 왜, 누구더라..., 응, 군수가 왜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고 왔었잖아. 그 때 왜 군수가 제방을 왜 높여 준다고 했었거든.

30) 이는 ‘-지’, ‘잖’이 화자, 청자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요소라는 것을 전제한다.

31) 이 경우 ‘왜’ 문장은 적어도 청자에게는 신정보가 된다. 따라서 ‘-지’나 ‘잖’에서 환기적 기능이 기인된다고 볼 수 없다.

32) ‘왜’의 환기적 기능은 본질적으로 ‘왜’의 의문사로서의 의문의 화행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논의를 피하기로 한다.

33) ‘왜’가 자기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인다는 점에서, 또한 선행 화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위와 상관없는 상황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이한규(1997)에서의 화자가 선행화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쓰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4) 실제 담화에서 ‘왜’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그 출현 문맥이나 분포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는 모두 환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왜’가 쓰인 (33a)와 ‘왜’가 쓰이지 않은 (38b)를 비교해 보면 ‘왜’는 물론 환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으로도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왜’는 초점적 기능을 수행한다. ‘왜’가 그것의 바로 앞 성분에 휴지 없이 결합될 경우 이 ‘왜’가 결합된 성분이 문장의 초점이 된다.

- (39) a. 기수가왜 미자한테 목걸이를 선물했잖아.
 b. 기수가 미자한테왜 목걸이를 선물했잖아.
 c. 기수가 미자한테 목걸이를왜 선물했잖아.

위에서 다른 문장 성분에 초점 강세가 없는 한 (39a)에서는 ‘기수’, (39b)에서는 ‘미자’, (39c)에서는 ‘목걸이’가 초점으로 해석된다.³⁵⁾ 즉, (39a)는 ‘누군가가 미자한테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맥락에서 (39b)는 ‘미자가 누군가한테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맥락에서 (39c)는 ‘기수가 미자한테 무엇인가를 선물했다’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왜’의 의문사적, 부정사적, 담화표지적 용법의 존재와 그 통사현상을 살펴보고 이들 용법 중 담화표지 용법의 형성과 그 담화적 기능에 대해 논의했다. 본고에서는 ‘왜’의 의문사적 용법과 담화표지적 용법 외에 기왕의 연구에서 그 존재가 부정되었던 부정사적 용법이 방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문사나 담화표지로 쓰일 때의 ‘왜’의 통사현상뿐 아니라, 부정사로 쓰이는 ‘왜’의 통사현상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왜’의 담화표지적 용법이 단순히 Grice(1975)의 협력의 원리에 의한 문맥 추론적 의미로 설명될 수 없고, 담화 수행상 ‘왜’와 관련된 의문의 사태가 언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의문사 ‘왜’가 문두에 실현되지 않고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 데서 기원된 것으로 보았다. 청자는 통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맥에 나타나서 직접 의문사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이를 의문의 사태와 관련시키지 않고 막연한 이유관련 의문으로 문맥적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왜’는 의미의 탈색으로 의미가 약화

35) 그러나 서술어 뒤에 ‘왜’가 결합되는 경우, 서술어가 초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되고 탈범주화되어 담화표지로 문법화된다고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왜’의 담화표지적 기능은 의문의 사태가 언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 ‘왜’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하나는 ‘왜’가 문제삼는 사태가 문맥적으로 추론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문맥적으로 추론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경우는 의문사적 성격을 지녔으나 의문사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 담화표지적 성격을 중시하여 담화적 기능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후자는 전형적인 담화표지적 성격을 갖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왜’는 상대의 발화의도 확인 기능, 발화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기능, 발화 내용에 대한 반박 기능, 기대부정의 심리태도 표출 기능, 이해 불가의 심리태도 표출 기능, 불쾌감 표출 기능 등의 담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가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태가 문맥상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후자의 경우, ‘왜’의 기본적인 담화 기능은 막연한 이유관련 의문을 통한 환기적 기능이라고 보았다. 이 기능은 청자의 기억뿐 아니라, 화자의 기억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경우 ‘왜’는 시간 별기 기능, 초점적 기능 등의 담화적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문헌

- 강상호. (1989). *조선어입말체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고영진. (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구종남. (1997). 간투사 ‘아니’의 의미 기능. *한국언어문학* 39, 43-64.
 구종남. (2001). 국어 의문의 화행과 응답 방식. *한국언어문학* 46, 413-432.
 구종남. (1998). 화용 표지 ‘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1, 411-434.
 서정목. (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신지연. (1988). *국어 간투사의 위상 연구*. 국어연구 83호.
 안주호. (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연구*. 한국문화사.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선웅. (2000). 의문사 +(이)-+-ㄴ가 구성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국어학* 36, 191-218.
 이익환 외 역. (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이정민 외. (1985). *의미론 서설*. 집문당.

- 이한규. (1997). 한국어 담화 표지어 '왜'. *담화와 인지* 제4권 1호, 1-20.
- 안주호. (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임흥빈. (1998) '무슨'과 '어떤'-의문에 대하여. 임흥빈, *국어문법의 심층 3*. 130-234. 태학사.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 장석진. (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조명원 · 나익주 역. (1997).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 Bach, E. (1971). Questions. *Linguistic Inquiry* 1.2.: 143-166.
- Bublitz, Wolfram. (1981), Conducive yes-no question in English. *Linguistics* 19, 851-869.
- Briton, L. J.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Mouton de Gruyter.
- Freedle, R. O. (1990).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14.
- Heine, Claudi, Hün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 Hopper, P. J.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no, Susumo. (1968). The Focus of the Question and Focus of the Answer *CLS* 18. 134-157.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구 종 남

561-75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63) 270-3171

e-mail: jnkoo@chonbuk.ac.kr

Received: 4 Jan, 2004

Revised: 15 Feb, 2004

Accepted: 13 Mar, 2004